



◀ 왼쪽부터 '문명과 의 만남', '루모스 헬멧', 3D 프린터로 제작한 타자기 모형.

▶ 태국의 조명회사 앙고가 누에고치로 제작한 '트랜시버 스페이스'



美·來로... 디자인을 보니 미래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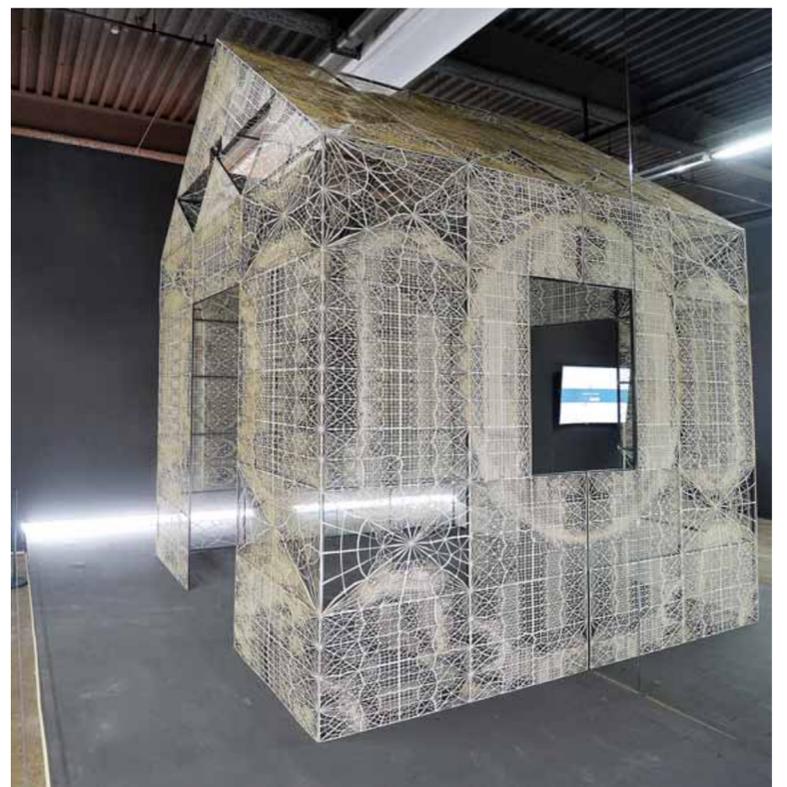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는 백남준 작 '코끼리 수레'.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8일 'FUTURES'(미래들)를 주제로 개막한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트로 격인 '본전시 1-오래된 미래'를 비롯해 '미래를 디자인 하자', '미래를 창업하자', '아시아 더 퓨처' 등 4개의 본전시와 '4차 미디어아트-포스터 휴먼' 등 3개의 특별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34개국 850여 작가와 기업 등이 출품한 1300점을 만날 수 있다.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화제를 모은 작품들과 행사 풍경을 화보로 엮는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컴퓨터 프로세스만으로 만들어낸 마이클 한스마이어의 '광주 가제보'.



실제 알프스 산속에서 염소와 함께 생활한 토머스 트웨이츠의 '염소 인간' 프로젝트.



본전시 '미래를 디자인하자'에서 선보이는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비전'.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www.geumsoojang.com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10월 2,3,4일 휴무입니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